

‘코리아컵’ 세계적 명마 총출동

트리플나인, 디펜딩챔피언 크리솔라이트 꺾을까?

〈한국〉

〈일본〉

10일 ‘코리아컵’ 제8경주 최강 라인업

‘챔프라인’ ‘삼로커’ 등 한국 대표마들 출전
日 ‘런던타운’·홍콩 ‘서킷랜드’도 우승후보

팻츠런파크 서울에서 10일 열리는 제2회 코리아컵(제8경주, 혼OPEN, 1800M, 3세이상, 순위상급 10억원)에 참가하는 경주마들이 최강 라인업으로 확정됐다. 미국, 홍콩, 일본 등 Part1 경마 선진국에서 오는 명마들과 ‘트리플나인’ 등 한국 대표 경주마들이 경쟁을 펼친다.

●트리플나인, 챔프라인…한국 경주마 위풍당당

한국 경주마의 라인업이 화려하다. 두바이월드컵 본선무대까지 진출한 ‘트리플나인’(5세, 수, R120)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출전한다.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한국경주마 중 국제무대 경험만 4번으로 가장 풍부하다. 4번 출전해 3번이나 순위 상급을 받았다. 올해도 해외무대에서 활동해 우수한 외국 경주마와의 대결에 익숙한 점이 이점이다. 국내로 복귀해 부산광역시장배(GⅢ), 오너스컵(GⅢ) 등 대상경주에서 모두 준우승을 기록했다. 2015·16년 연도 대표마와 최우수국내산마 타이틀을 휩쓴 한국을 대표하는 최강마다.

‘챔프라인’(5세, 수, R113)은 올해 출전한 5번의 경주에서 단 한 번만 빼고 모두 우승을 기록할만큼 상승세다. 560kg의 거구이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지구력을 지닌 부산경남의 대표 경주마다. 2010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조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다승순위 5위에 올랐던 실력과 외국인 조교사인 토마스(33)가 관리하는 마필이다. 승률은 52.4%로 ‘트리플나인’보다 오히려 높다. 다만 1800m에서 승률이 33.3%로



제2회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국산 최강마 ‘트리플나인’(왼쪽)은 출발번호 추첨 결과 비교적 안쪽 게이트인 6번에 배정됐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디펜딩챔피언 일본의 ‘크리솔라이트’는 10번에 배정됐다. 경주로 안쪽 게이트에 배정될 경우, 초반 자리 선점에 유리하다. 사진제공 1 한국마사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아쉽다.

서울 대표 경주마 ‘삼로커’(4세, 수, R114)는 최근 입상률(순위 5위 이내)이 100%로 상승세이며 유력 후보로 꼽힌다. 스피드와 힘을 고루 겸비한 마필로 선입과 주입 작전구사가 자유롭다. 올해 출전한 5번의 경주에서 우승을 3번 했으며, YTN배, 해럴드경제배 등 대상경주에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올해 대상경주에서 무려 5번이나 우승을 거머쥔 송문길 조교사가 관리하는 마필로 기대주다.

그 외에 ‘다이나믹질주’(6세, 수, R103)는 45번 출전해 31번의 입상을 기록하는 등 큰 기록 없이 꾸준히 5위 이내에 입상했던 경주마다. 최근 성적이 다소 부진하나, 컨디션 회복이 빠르

다면 기대해볼만 하다. ‘블드킥즈’(5세, 수, R100)는 다소 약체로 평가받지만 한때 3세마로는 한국 경마 역사상 25년 만에 100% 승률(7연승)로 그랑프리를 제패했던 경력이 있다. 특히 경주마로서는 이상적인 체형에 강한 근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다.

●크리솔라이트, 서킷랜드…일본·홍콩 경주마 기세등등

코리아컵 디펜딩 챔피언인 일본의 ‘크리솔라이트’(Chrysolite, 7세, 수)가 다시 한 번 팻츠런파크 서울을 찾았다. 크리솔라이트는 경마판계자가 꼽는 코리아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일본 최고의 명마 ‘선데이사일런스’의 피를 물려

받은 혈통적으로도 우수해 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런던타운’(London Town, 4세, 수)은 지난 8월 샛포로경마장 1700m 경주에서 1분40초9로 코스 레코드를 기록하며 일본 상위클래스 경주마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매서운 추진력이 돋보이는 경주마로, 이번 경주에서 중반 탄력 있는 걸음을 선보일지 기대가 높다.

홍콩에서 오는 경주마 ‘서킷랜드’(Circuit Land, 6세, 거)는 올해 출전한 총 4번의 홍콩 대상경주에서 3번이나 순위상급을 기록했을 만큼 우수하다. 홍콩의 잔디주로와는 다른 한국의 모래주로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파워블레이드 vs 워블던 “단거리 1인자 나야 나”

〈한국〉

〈싱가포르〉

10일 제7경주 ‘코리아스프린트’

한국마 ‘실버울프’·홍콩마 ‘럭키이어’ 복병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국제 경주 ‘코리아스프린트’(GI, 혼OPEN, 1200M, 3세 이상)가 10일 팻츠런파크 서울에서 제7경주로 열린다. 지난해는 한국 경주마 ‘마천볼트’와 ‘페르디도포머로이’가 각각 2, 4위를 기록하며, 한국경마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는 한국경마 최초의 통합 삼관마 ‘파워블레이드’(4세, 수, R118)가 나선다.

●파워블레이드, 실버울프, 돌아온포경선…쟁쟁한 한국경주마

‘파워블레이드’는 2016년 삼관 대회인 KRA컵 마일, 코리아던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경마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명실공히 최우

수 국산 3세마. 2세 때부터 브리더스컵, 경남신문배 등 대상경주를 휩쓸며 역량을 뽐냈다. 올해는 해외 경주 경험과 더불어 마체중이 530kg대로 오르며 체격과 힘도 함께 상승했다. 이를 증명하듯 파워블레이드는 8월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오너스컵(GⅢ) 대상 경주에서 국내 최강마로 꼽히는 ‘트리플나인’을 1마신차로(1마신=약 2.4m) 제치고 우승을 거뒀다.

‘실버울프’(5세, 암, R106)는 5세가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다. 7월 KNN배(GⅢ)에서 2위마와 무려 9마신차의 거리로 우승했다. 감자와의 경험은 다소 부족하나, 팻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오르막 주로를 선행으로 치고 나서도 파워가 남을 정도여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6월 단거리 우수마를 선발하는 SBS스포츠 스프린트(GⅢ)에서 ‘코차’의 명승부를 보여준 ‘돌아온포경선’(4세, 수, R106) 역시 기대주



파워블레이드

워블던

다. 1200m 경주에 4번 출전해 3번이나 우승할 만큼 단거리 경주에 강하다. 빠른 걸음을 갖춘 데다 순발력이 좋아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페르디도포머로이’(4세, 수, R112)는 스피드 면에서는 최강자다. 작년 SBS배 한일전(GⅢ)에서 우승할 정도로 역량도 출중하다.

1000~1400m인 단거리 경주에만 출전한 전형적인 스프린터로 경주 초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근력으로 승부해볼만 하다.

●외국 경주마, 전형적인 스프린터형 경주마로 맞서다

‘워블던’(Wimbledon, 6세, 수, 싱가포르)은 코리아스프린트 출전마중 가장 높은 국제레이팅(IR) 112를 보유한 경주마다. 8월 싱가포르터프클립(STC)에서 열린 직전 대상경주에서 준우승해 좋은 컨디션 선보인바 있다. 특히 출발이 좋아 스프린트 경주에 최적화된 경주마로, 빠른 현지 적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럭키이어’(Lucky Year, 6세, 거, 홍콩)는 홍콩 대상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둔 실력이 검증된 마필이다. 막판 탄력 있는 스피드를 갖춰 유력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1200, 1400m에 특화된 전형적인 스프린터형 경주마다. 조교사 챔스성은 홍콩자키클럽(HKJC)의 조교사 랭킹 6위(2017년 4월27일 기준)로, 홍콩 챔피언 조교사였던 이반 앨런에게 교육을 받았을 만큼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다. 정용운 기자

주목받는 ‘말산업’ 유망직종은?

마필관리사 최고연봉 1억 넘어
희귀업종 장제사 한국에 80명뿐

국내 말산업은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커가고 있다. 해외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2012년 2조 8000억원이던 시장이 2016년에는 3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올해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말산업 관련 기업은 2278개로 총 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도 생겨났다. 특히 전국의 승마장은 2014년 395개소에서 2016년 479개소로 21% 이상 늘었고, 승마인구가 5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말산업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본다.

●마필관리사 어린 말들을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전문인이다. 경주마 훈련에서부터 사료 먹이기, 말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책임진다. 조교사를 대신해 출마 등록을 하고, 혈액채취와 약품검사를 돕고, 체중과 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최저 3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한다. 평균 연봉은 5352만원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차장급보다 많다. 정해진 급여 외에 마방 성적에 따라 경주상금을 나눠 받는다.

●조교사 말의 아버지라 불리며 경마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조교사 1명이 보통 20~40마리의 말을 마주로부터 위탁 받게 되는데 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훈련 및 영양 상태까지 관리하며 어떤 말에 어떤 기수를 태울 것인지 결정한다. 실제 경기에서는 상대편 경주마를 분석해 어떻게 경주를 전개해야 할지 작전 사령탑을 맡는다.

●기수 경마의 꽃이라 불리는 직업이다. 키 168cm이하, 몸무게 49kg이하 등 신체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에 입학해 2년 과정 수료 후 2년의 수습기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경마아카데미는 평균 경쟁률 약 10대 1을 기록한다. 평균 소득도 대기업 중간급부에 못지않다.

●장제사 우리나라에는 80여명 밖에 없는 희귀 직업이다. 한국마사회가 공인한 장제사는 65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승마장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 장제사 양성과정의 자체자격시험이 폐지돼 국가자격시험 통과자만 활동이 가능하다.

●재활승마지도사 승마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치료를 지도하는 전문가다.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율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다. 매년 초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포털(www.horsepia.com) 공고로 통해 모집·선발된 인원에 대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 와-말테니스트, 말아티스트, 말미용사, 말헬빙관리사 등이 있다. 말테니스트는 경주마 전문 치료의로서 경주마 치아관리 및 발치 등이 그 업무이고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관련 학과 및 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특화되지 않은 분야로서 수의사들이 겸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 토드

야구팬 “상승세 롯데, 삼성 썬이야” 57%

야구토토 스페셜 86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 수탁사업자(㈜케이토토)가 9월 8일 열리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86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2경기 롯데-삼성전에서 과반을 넘는 56.72%가 롯데의 우세를 예상했다. 삼성의 승리 예상은 29.99%에 그쳤다.

나머지 13.26%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전망했다. 최종 점수대는 롯데(4~5점)-삼성(2~3점) 항목이 1순위(6.38%)를 차지했다.

1경기 KIA-한화전에서는 54.17%가 KIA의 승리를 예상했다. 32.39%는 한화의 승리에 투표했다. 나머지 13.44%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선택했다.

최종 점수대는 KIA 6~7점, 한화 2~3점 예상이 6.09%로 최다였다.

마지막 경기 NC-SK전에는 43.38%가 원

야구토토 스페셜 86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7일 오전 9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KIA VS 한화		롯데 VS 삼성		NC VS SK	
경기일시	9.8(금) 18:30		9.8(금) 18:30		9.8(금)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6~7)-(2~3)	6.09%	(4~5)-(2~3)	6.38%	(6~7)-(6~7)	5.52%
2	(4~5)-(2~3)	5.18%	(6~7)-(4~5)	6.34%	(4~5)-(10+)	5.41%
3	(6~7)-(4~5)	4.48%	(8~9)-(2~3)	4.97%	(6~7)-(4~5)	5.24%
홈팀 승	54.17%		56.72%		41.44%	
같은 점수대	13.44%		13.26%		15.17%	
홈팀 패	32.39%		29.99%		43.38%	

* 개입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포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 마감 : 2017. 9. 8(금) 18시 20분

정팀 SK의 우세를 내다봤다. 홈팀 NC의 승리는 41.44%, 같은 점수대는 15.17%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로는 양 팀 모두 4~5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순위(5.52%)로 집

계됐다.

야구토토 스페셜 86회차 게임은 9월 8일 오후 6시 2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야구토도 승1패’ 23회차, 14경기 대상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9월 12일에 벌어지는 한국프로야구(KBO) 5경기과 미국프로야구(MLB) 8경기, 일본프로야구(NPB)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야구토도 승1패 23회차 게임을 발행한다.

KBO에서는 1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는 넥센-kt(10경기)전부터, LG-롯데(11경기), SK-KIA(12경기), 삼성-한화(13경기), NC-두산(14

경기)전까지 모두 5경기가 야구팬을 찾아간다.

MLB에서는 토론토-볼티모어(1경기), 클리블랜드-디트로이트(2경기), 탬파베이-뉴욕양키스(3경기), 밀워키-피츠버그(4경기), 텍사스-시애틀(5경기), 캔자스-시카고하이트삭스(6경기), 애리조나-콜로라도(7경기), 샌프란시스코-LA다저스(8경기) 경기가 선정됐다. NPB는 12일 오후 6시에 샛포로돔에서 시작하는 니혼햄-라쿠텐전이 9번 경기로 뿔했다.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35회차는 9월 10일과 11일에 열리는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3경기과 영국프로축구 EPL 1경기, 미국 프로야구 MLB 3경기 등 총 7경기다.

라리가에서는 발바오-지로나(1경기)를 비롯해, 셀타비고-알라베스(3경기), 비야레알-베티스(5경기)전이 선정됐다. EPL은 스완지시티-뉴캐슬(2경기)전, MLB는 세인트루이스-피츠버그(4경기), LA다저스-콜로라도(6경기), 애리조나-샌디에이고(7경기)전이 뿔했다.